

‘2215억 횡령’ 오스텍임플 직원,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첫 재판 때 ‘기록 복사 안돼’ 주장해 공전

회사돈 2215억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오스텍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4)씨 측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 측은 첫 공판에서 “기록 복사가 안 됐다”고 주장해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이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날 이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페이스시드를 쓴 채 법정에서 등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신

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아직 법정에 넘어오지 않은 만큼, 해당 혐의가 기소되면 병합해 재판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횡령금 일부를 가족 명의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의 제3자 몰수·추징 관련 명의자들이 이날 법정에 나왔다. 이들은 ‘몰수·추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는 질문에 “아직 변호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마무리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텍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이 드러나자 이씨는 잠적했고, 경찰은 지난 1월5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은신하고 있던 이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이후 이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금과 690억원 상당을 회수했다.

또 252억원의 증권계좌를 동결했고,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394억원이 인양됐다. 법원은 최근 이씨 재산 1144억여원에 대한 추징 보전도 받아들였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횡령금으로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를 했다. 762억원 손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씨 횡령 범행 부분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이 부분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와 그의 가족 4명은 지난 달 28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송치됐다. 검찰은 이씨와 같은 팀 직원 2명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박남진기자



간호법 제정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MC당동, 음주운전하다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혐의...구속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당동(43·본명 허용운)이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허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 2월 중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허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한기자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체포영장 만료 임박...4개월째 행방 묘연해

“두번째 체포영장 만료일이 12일...법원에 재청구해야”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아내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의 행방이 4개월째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들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와 내연남 조씨의 첫 소환 조사 후 다음날인 14일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 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다.

검찰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자 또 다시 지난 1월11일 유효기간 3개월인 체포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결국 지난 1월 지명수배하고 추적했다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12일까지로, 이씨와 조씨를 검거하지 못하면 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를 공개 수배하기 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들이 잠적한 이후 해외 출국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해외 밀항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쉽지 않고 코로나 시국이라 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들이 4개월째 신용카드,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없는 점을 미뤄 그동안 모아 둔 현금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게 지배

적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공개 수배로 전환된 시점에서 이렇듯 확인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숨어 살고 있을 것”이라며 “그 동안 모아 둔 현금으로 생활할 것으로 추측하지만 그마저도 (현금이)떨어지면 자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치고,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남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윤씨의 지인이 발견해 윤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조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계곡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씨의 옛 남자친구들이 인천과 태국에서 각각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내사에 정식 착수했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